

# 김옥임 교수가 쓰는 **지족의 경제학** <33>

불교의 정치관은 전통왕의 사상 속에서 나타난다. 마다카국의 국왕 마우리아 왕조의 제3대 왕인 아쇼카왕은 그의 재위 중 전통왕의 사상을 실행하면서 복지정책을 펼쳤다.

불교성전인 <장아함경(長阿含經)>과 <유행경(遊行經)>에서는 국가를 위하여 다음 일곱 가지의 설교하고 있다.

- (1) 회합을 통하여 정치를 논의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국방을 엄히 지키다.
- (2) 상하심(上下心)을 하나로 화합하고 더불어 국사를 논의한다.
- (3) 국풍(國風)을 존중하여 문란하게 하지 말며, 예(禮)를 소중히 하고 의(義)를 공경한다.
- (4) 남녀의 구별을 바르게 하고 장유(長幼)의 질서를 지켜서 사회와 가정의 순결을 잘 보전한다.
- (5) 부모에게 효도하고 스승에 봉사한다.
- (6) 조상의 제단을 우러러 받들며 제사를 모신다.
- (7) 도(道)를 존중하고 덕을 숭상하며, 덕이 높은 스승에게 배움을 청하고 후하게 공양한다.

또 <법화경(法華經)>에 설파하고 있는 이상적인 왕은 백성들에게 '세상의 즐거움보다 올바른 가르침으로 기쁨을 얻게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왕이 된 사람의 책무는 백성을 지키는데 있다. 왕은 백성을 국가의 보배로 삼는다. 이것은 백성이 편안하지 않으면 정도(正道)가 정립되지 않기 때문이다'고 설명하고 있다. 전통왕이 바로 이러한 이상적인 왕에 해당한다. 전통왕이란 가계(家系)가 바르고, 신분이 고귀하고, 사방을 잘 제어하며, 또 불법의 가르침을

지키는 왕을 말한다.

아쇼카왕이 바로 이상적인 왕, 전통성왕의 대표적인 예다. 아쇼카왕은 살육전쟁으로 큰 승리가 한창일 때 별안간 깨달은 바가 있어서 종래의 무력주의를 버리고 불교에 깊이 귀의하여 평화롭고 자비로운 정치를 펼쳤다. 아쇼카왕이 '신들에게 사랑받은 따뜻한 모습의 왕'으로 자칭한 것은 전제군주에서 자신에게 신성성을 부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개 인간으로서 백성을 따뜻한 관용으로써 접할 것을 원하고 맹세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승(高僧)에 대하여는 절대 귀의의 태도를 취하고, 인민일반의 모범으로서 스스로를 바르게 보전하면서도 항상 자기가 안전하지 않음을 알고 있었다. 회의를 개최하면서도 충분히 논의를 다하지 않으면 사안을 결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아쇼카왕은 '전 세계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나의 임무로 생각한다'고 말하고, 그것을 정치의 첫째 지침으로 삼고 있었다. 이익이라는 것은 물질과 정신 양면의 이익을 가리키고 있다.

둘째, '모든 국민은 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연대와 공평을 중시했다.

셋째, '법의 실천'을 설했다. 물론 이 법은 불법(佛法)이다. 우주의 법칙이며 사회규범을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서 불법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올바른 정도(正道)이다. <용수의 대승사상>(관음출판사에서)도 법에 세상 사람들은 감동하며, 그들이 감동할 때 최고의 정도로 설했다고 있다. 그 구체적인 방향은 가난한 자에게 조세를 감면해주고 자신의 평등과 이

# 이타·영혼 향상의 불교적 복지에 주목해야

## 아쇼카왕의 정치·복지관은 중국과 일본 제왕의 규범대



그림 · 김필현

타(利他)의 실천에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이념에 기초해 왕은 국민이 불법승(佛法僧)에 귀의할 것을 권장하며 양친 및 연장자에게 순종할 것, 노예와 피고용인에 대한 바른 대우방법을 설명하고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의 살생을 금하고 사람들에게 널리 보시를 권장했다.

구체적으로 인간과 동물을 위한 의료시설을 만든다거나 약초를 재배하는 공원을 만들고, 녹음이 많

은 나무(가지마루)나 열매가 여는 망고를 심고 음수대를 정비하며 당연히 동물 애호에도 진력했다. 또 여성 교육에도 힘썼고, 모든 종교를 존중하고 미신을 타파했다.

아쇼카왕의 정치가 그 후 중국이나 일본에서 제왕의 규범이 되었던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대승불교가 전파된 일본을 살펴보면, 불교의 흥을 나라의 정책기조로 삼았던 성덕태자가 대표적이다. 그는 관개 배수를 위한 연못, 둑, 도랑을 만들고 도로를 정비하고 흉년에 대비하여 각지에 '미야케'(屯倉, 조정의 직할지)를 두었다. 또 병자, 가난한 자 등을 구제하는 복지시설을 대도시(오사카 등) 큰절(사천왕사)에 지어 그들을 양호했고, 그 후 도꾸가와 바쿠후(德川幕府)시대에는 약초원(藥草園) 등의 사회복지시설도 건립했다.

복지정책의 근저에는 인간의 생명과 같은 연대관계에 있다는 <화엄경>의 중중무진연기(重重無盡緣起)사상이 있다. 성덕태자가 채택한 삼경의 하나인 <승만경(勝鬘經)>에는 '자신을 위하여 재산을 비축하지 말고 모든 재물은 모두 가난한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나누어 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잡보장경(雜寶藏經)>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돼 있다.

"나는 지금까지 복의 씨앗을 심는 것을 모르고 지내왔는데, 복의 씨앗을 뿌릴 법인 공양의 기회를 보고 신앙심이 일어나 아까워 남 주지 않은 마음을 버리고 베풀었던 것이다. 진정한 부란 재물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알았으므로..."

메이지30년(1897년)에 불교지 <명교신지(明教新

誌)>에는 불교는 해탈종교에서 사회적 종교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주장됐다. 또, 불교의 자비관을 근대사회 가운데 자리매김하면서 '자리아타일여(自利利他)一如의 여래(如來)'에 의한 자신으로서 포착한 것은 지극히 중요한 일이라 생각된다. 여기에서 불교적 복지의 방향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싶다.

불교복지는 모든 사람들이 불성을 지닌 동등한 사람이라는 생각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결코 강자의 약자에 대한 연민이나 동정으로 행하여지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리아타일여의 여래에 의한 자신'은 불교복지의 근본을 나타내는 말이라 하겠다.

구미 경제학에서 복지는 초기자본주의 하에서의 노동자의 비참한 노동조건과 생활수준을 국가의 힘으로 어느 정도 보전해 주고자 하는 시도에서 발생한 것이었다.

노동자 자신의 힘으로 경제의 모든 초석을 다시 놓으려한 것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경제학이었으나, 그 귀결은 소련 및 동유럽의 실정에서 분명하게 실증해 보여주었다. 이것을 상기하면 위기신학의 칼 바르트가 사회주의 운동에 몰두하던 중 사회주의가 인간의 욕망 증대에 가담하는 것이라고 깨달아 영혼의 구제를 지향하는 신학자로 전환한 심경이 이해 될 것 같다.

결국 불교의 복지는, 처음부터 이타(利他)와 영혼의 향상을 목표로 했던 것에 오늘날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인동대 경제학과 교수

### 33 쇄신(刷新)

어느 리더십 워크숍에서 스티븐 코비 박사가 청중을 향해 물었다. "여기 운전하기 바빠서 주유소 들릴 시간이 없다는 분 안 계십니까?" 청중들은 모두 큰 소리로 웃었는데, 그 중에는 가슴이 뜨겁한 사람들이 없지 않았을 것이다. 비근한 예로 일에 쫓겨려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 일에 소홀한 사람이 얼마나 부지기수인가? 몸의 건강만 건강인가? 마음과 몸이 하나라는 사실에 눈을 돌려보면, 일이라든지, 현안에 매달려 정신적 건강이 피폐해 가는 것을 방지하고 있는 일은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주유소에 들러 연료를 재충전하는 일을 계속 미루고 있다면 언젠가는 가솔린 탱크가 바닥나고 차를 길 한복판에 세워야 하는 일이 오는 것처럼, 건강도 이를 쇄신하고 재충전하는 일을 계속 미룬다면 어떤 결과에 이르게 될지는 예측하기 어렵지 않다. 건강이라고 한 마디로 표현했지만, 코비 박사는 자기리더십(Self Leadership)의 명제로서 네 가지 측면의 건강을 염두에 두고 이를 쇄신하라고 말한다. 신체·정신·영적 건강의 쇄신, 그리고 관계(Relationship)의 쇄신이다.

신체적 쇄신을 이루기 위한 첫 번째는 정기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다. 자신의 체력 조건에 맞추어 매일 적당한 양의 운동을 빠짐 없이 하는 것인데, 아시다시피 '빠짐없이'라는 것이 주도성

## 허달의 불교와 코칭

(Proactivity)을 시험하는 큰 도전이 된다. 두 번째 노력은 영양소의 투입인데, 일반인의 경우 나이 40세가 넘어서면 체내에서 생성되지 않는 많은 효소가 있다 하며, 이 중 필수적인 효소, 미네랄 등은 외부에서 확보하여 투입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신적 쇄신의 문제는 조금 더 복잡하다. 가솔린 탱크에 남은 연료의 양을 눈금으로 표시해 주는 계기(計器)가 없기 때문이다. 이 탱크의 충전은 주로 독서와 글쓰기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일주일에 몇 권의 책을 읽을 것인지 목표를 설정하라. 그리고 평소 읽고 싶었던 책의 리스트를 만들어 시작하라는 것이 쇄신을 위한 실질적 충고이다. 달라이 라마의 충고처럼 적어도 일 년에 한번은 이전에 전혀 가보지 않았던 곳으로 여행을 떠나는 것, 눈에 띄는 대로 리더십 세미나 등에 참여하는 것 등도 정신적 쇄신을 위한 좋은 처방이다.

수행을 하는 불자의 경우는 자신만의 시간을 갖고 명상, 참선하며, 또한 여러 가지 봉사 기회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영적 세계를 늘 새롭게 유지할 수 있다.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이거나, 참선·명상의 기회에 이르지 못한 사람의 경우는 자신의 사명서

(Personal Mission Statement)를 만들고, 이를 새롭게 하는 일 등을 영적 쇄신을 이루는 방법으로 채택할 수 있을 것이다. 내 경우 매일 108배를 끝내고 잠시 호흡을 가다듬어 좌선하는데, 신체적 건강과 영적 건강의 쇄신이 함께 이루어지는 양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은 관계의 쇄신인데, 이것은 나와 내게 소중한 타인 사이에 존재하는 신뢰의 잔고를 늘여나가는 작업이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두 사람만의 사이에 존재하는 신뢰의 양을 잔고로 하는 계좌가 하나씩 생겨나는데 이를 코비 박사는 '감정은행계

### 운전에 바빠 주유소 들리지 않는다면...

좌'라고 명명했다. 상대방에 대한 친절, 배려, 호의, 약속을 하고 이를 지키는 것, 자신의 잘못에 대한 솔직하고 신속한 사과, 그 자리에 없는 제3자의 흉을 보지 않는 행위 등은 이 계좌에 예입(預入)하는 행위가 되고 그 반대는 인출(引出)이 된다. 관계의 쇄신이란 이 계좌에 뜻하지 않은 인출이 생기지 않았는지 늘 점검하고, 끊임없이 예입하는 행위를 일컫는 것이다.

쇄신은 자켓목을 옮겨 힘의 효과성을 높이는 일, 활의 시위를 당겨 팽팽하게 하는 일 등과 같은 창조적 긴장을 유지하는 일이므로, 나무꾼이 무디어지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톱날을 가는 일'에 비유된다. 이 일의 중요성은 우리가 현재 직면한 어떤 일과 비교해보아도 그 우선순위가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를 긴급하지 않은 일로 치부하고 미루게 된다.

오늘 이 글을 읽고 네 가지 분야의 쇄신을 실행하기로 마음속으로 결심한 독자가 있었다 하자. 그가 오늘 결심한 쇄신의 행위를 며칠이나 지속할 수 있을까? 길어야 3일이라는 것이다. 작심삼일(作心三日)이란 말이 있는 연유다. 그러면 이와 같은 실행상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삼일 마다 작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쇄신을 통한 자기 발전은 언제나 결심-실행-좌절-결심-실행이 되풀이되는 나선형의 향상이 되는 것이 정상이다. 그렇지 않다면 많은 선지식들이 '정진(精進)'을 권면하는 말씀을 그처럼 많이 남기실 까닭이 어디 있겠는가?

■ 한국코칭센터 고문

천기(天機)의 비밀을 풀어주는 **해심래정택일지** 庚寅年 庚寅年 庚寅年

365일 매일 한 장씩 매일운세! 한눈에 훤히 볼 수 있는 **래정비법!**

4x6배판/칼라제본/436쪽/정가 20,000원  
문고판/칼라제본/436쪽/정가 10,000원

베스트 화제작 **신간** **귀신뽑는 래정비법!** 백초귀장술 上·下

찾아온 일진, 시간만 가지고 왜 왔는지 무엇이 탈났는지 어떤 귀신이 붙었는지 어느 조상이 탈이 났는지 들어오는 순간 알 수 있는 **특수 조사법!**

귀신뽑는 래정비법으로 복잡하지 않고 간단히 알 수 있는 비법공개! 60장짜 일진별로 한눈에 속속 알 수 있게 초사를 확실하게 설명!

① 신국판/양장본/567쪽/정가 120,000원  
② 신국판/양장본/720쪽/정가 120,000원